



미국, 영국에서는 상금의 절반이 세금

웬블던은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대회로 모든 선수들이 뛰고 싶어 하는 무대다. 그랜드슬램 중 US오픈 다음으로 많은 상금을 주는 대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 스포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세금이다. 영국은 2010년, 15만 파운드(약 2억2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했고 2012년에는 5% 낮춘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했다. 수입의 거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세금 정책을 통해 선수들의 행보를 이해해보자.

복잡하고 너무한 영국, 선수들 “피하는 게 상책”

2011년 10월,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이듬해 영국 퀸즈클럽에서 열린 아혼챔피언십 불참을 선언했다. 영국의 세법 때문에 대회 출전은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것이 이유였다. 웬블던에는 출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달은 2012년부터 2015년을 제외하고 아혼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았다. 영국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기로 유명한 나라다. 그러나 나달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는 단순히 높은 세금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은 비 거주 운동선수에게도 수입이 영국에서 수행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상금뿐 아니라 스폰서 및 광고 수입도 대회수에 비례해 과세한다.

나달이 매년 20개 대회에 출전하는데 이중 하나가 웬블던이라고 가정해 보자. 나달은 웬블던 상금과 영국에 있는 동안 얻은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테니스와 관련된 스폰서 및 광고 등의 1년 수입 중 약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1년이란 영국의 과세 연도를 의미하며 기간은 매년 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다. 그리고 과세 연도 기간 영국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해 이중 과세를 내게 된다. 또 영국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46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인정된다.

이처럼 복잡한 영국 세금 규정 때문에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도 2012년 런던올

림픽을 제외한 버밍엄 그랑프리 등 영국 육상대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참고로 영국에서 올림픽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축구) 등과 함께 면세가 적용되는 대회다. 웬블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웬블던 전초전으로 독일에서 열리는 게리베버오픈에 출전하는 것과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7년 동안 웬블던 뛴 대



2002년 탈세혐의로 곤욕을 치렀던 보리스 베커

회에 불참한 것도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조코비치는 올해 아흔참피언십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다. 와일드카드 출전자는 면세 대상이다. 만약 와일드카드를 받지 않았다면 조코비치는 올해도 불참했을 지도 모른다. 또 영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선수라면 높은 영국 세금과 함께 본인의 국가에서도 또 납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러모로 까다로운 영국의 세금 정책이다.

‘세금 천국’ 모나코와 플로리다 그리고 스위스

영국과 반대로 세금 혜택이 풍부해 선수들에게 환영 받는 나라나 도시도 있다. 프랑스 남부 연안에 위치한 모나코는 1인당 국민소득이 프랑스의 2배를 넘나드는 부국으로 세금이 없기로 유명한 나라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뽀빠리 정상에 오른 비외른 보리(스웨덴)가 1990년대에 모나코로 이주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시 스웨덴은 최상위 소득자에게 최고 85% 이상의 세율을 적용했다. 보리스 베커(독일)도 같은 이유로 모나코에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기도 했다. 베커는 “독일 어딘가에서 칫솔을 잃어버렸다면 당신은 독일 거주자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현역 중에는 조코비치, 체코의 페트라 크비토바와 토마스 베르디흐, 밀로스 라오니치(캐나다),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 등이 모나코의 수도인 몬테카를로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올해 4월에 열린 ATP투어 1000시리즈 몬테카를로마스터스의 총 상금은 462만9천725유로(약 60억원)였다. 우승 상금은 46만4천260유로(약 6억원)였다. 세금 없이 그대로 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미국의 플로리다주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선수들에게 선호 받는 지역이다. 윌리엄스 자매도 과거 모나코에서 살다가

조금 다른 미국의 세금 체계

미국은 연방세와 주세를 따로 낸다.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은 큰 영토로 인해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다. 때문에 세금 규정도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플로리다와 같이 주세가 없는 지역은 알래스카주, 네바다주, 텍사스주, 사우스다코타주,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등 7군데다. 연방세는 저소득자에게 15%, 25만 달러(약 2억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는 39.6%를 적용한다. 시즌 마지막 그랜드슬램인 US 오픈은 뉴욕주에서 열린다. 뉴욕주의 소득세는 4~8% 수준으로 연방세와 합치면 약 44~48%의 세율에 다르다.



카타르오픈 우승으로 얻은 상금은 전액 조코비치에게 돌아간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 선수가 챌린저나 퓨처스 등의 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하면 기본적으로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 선수의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조세법에 따르면 조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선수에게는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미국 선수는 3천달러(약 34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일본 선수의 경우는 1만달러(약 1천1백만원) 이하의 소득에 세금이 면제된다. 기준 금액이 넘어갈 경우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국인 미국으로 돌아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와 니시코리 케이(일본) 등이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다. 복식 강자 브라이언 형제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로리다로 넘어왔다. 캘리포니아가 13.3%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스위스도 다른 유럽에 비해 적은 17%의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스위스의 볼레라우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세금이 낮은 곳 중 하나로 2014년, 페더러가 113억 짜리 대저택을 장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이종성 교수는 “다른 유럽은 보통 30%의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세금 측면에서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조 윌프리드 송가와 가엘 몽피스, 질레스 시몽, 리샤르 가스켓도 자국의 높은 세금을 피해 스위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의 세율이 45%에 다르기 때문이다. 모나코는 프랑스 국민에게 면세를 주지 않아 큰 이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서유럽보다 동유럽이 세금이 낮다. 예를 들면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이 있다. 특히 동유럽은 부자세에 관대하다.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도 대표적인 면세 국가다. **글** 이상민 기자 **사진** GettyImagesKorea